

# 독서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 독서의 달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otto of Reading

이 만 수(Lee, Man-Soo)\*\*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독서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
| II. 표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독서주간과 독서의 달       |
| 1. 표어의 의미         | 2. 독서 표어 조사          |
| 2. 표어의 특징         | 3. 독서 표어 분석          |
| 3. 표어의 유형         | IV. 독서표어 분석 결과 논의    |
|                   | V. 결론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표어의 특징,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독서주간과 독서의 달의 표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독서표어를 분석해 보면 간결하고 도치된 표어가 많다. 또한 대구와 반복 음절을 쓰고 있다. 또한 청유형과 서술형, 명사형이 많고 국어로 된 단어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반복하여 계속 사용되고 있고 한 시대의 목표와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 독서, 독서 표어, 독서의 달, 독서주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heory for characteristic & type of motto and to research the motto of reading week & reading month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motto of reading was brevity, reverse, antithesis, repetition, leading, narrate, term and the korean language. The motto of reading shows philosophy, target of a time

Key Words : reading, motto of reading, reading month, reading week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slee@daejin.ac.kr)

· 접수일 : 2004. 11. 18 · 최초심사일 : 2004. 11. 25 · 최종심사일 : 2004. 12. 10

## I. 서론

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홍보성, 교육성 표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체력은 국력’, ‘자나 깨나 불조심’,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과 같은 표어가 금방 생각해도 너무나 많이 떠오른다. 기업이나 관공서, 학교, 특히 대학가에서는 프랑카드와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기념일에도 길거리에 어김없이 걸려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머리 속에는 수많은 표어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서와 도서관에 관련된 익숙한 표어들 중에는 ‘독서는 마음의 양식’, ‘읽으면 행복합니다.’,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와 같은 것이 있다. 이 표어는 누구나 공감하는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 표어는 간단하고 짧은 말이지만 독서의 중요성과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독서표어를 현상 공모하고 있다.

2004년 독서의 달 표어 공모에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2편이 선정 되었는데, 최우수로 선정된 표어는 ‘물음표로 책을 펴고 느낌표로 책을 덮자’이며, 우수 표어는 ‘책을 펴는 당신 손에 더 큰 세상 더 큰 미래’와 ‘책을 펴세요, 당신의 생활이 행복해 집니다.’이다.

독서와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런 표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독서운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독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각종 단체, 언론, 기업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마다의 기념일이나 행사에서 홍보 및 교육적인 목적으로 표어를 내 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서와 도서관에 관련된 기념일이나 행사로는 4월 23일에 개최하는 세계책의 날 행사, 4월 12일부터 18일의 도서관주간, 5월 첫 주 어린이독서주간, 해마다 6월 초에 개최되는 서울국제도서전, 매년 9월은 독서의 달, 매년 10월 11일 책의 날 등이 있다. 이런 행사에는 바로 표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행사에서 내걸고 홍보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표어의 특징과 유형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표어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표어의 경향을 파악하여 독서를 권장하고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독서의 달(독서주간 포함)의 표어에 한정하여 인터넷과 도협월보, 도서관 등 도서관협회나 각 도서관 그리고 독서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독서주간과 독서의 달에 관한 행사 때에 표어를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어를 활용하였는지 기록을 찾을 수 없는 해가 다소 있다. 그러므로

우선 확인 된 해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논문의 한계이다.

## II. 표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표어의 의미

표어가 처음 생긴 것은 서양의 무사들이 방패에 새긴 제명(題銘)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sup>1)</sup> 그만큼 표어의 역사도 오래된 듯 하다.

표어(motto)란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 예를 들면 독서표어로 '읽으면 행복합니다.'라든가 불조심을 유도하기 위한 표어로 '마음마다 불조심 손길마다 불조심.' 또는 교통안전 표어로 '안전벨트 생명벨트, 안전속도 생명속도' 등이다. 유명한 표어로 올림픽 표어가 있는데, 소개 하면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Citius, Altius, Fortius)'이다.

표어는 상징어의 일종이지만 도덕적 내용을 제1의(第一義)로 하는 금언(金言)이나 격언(格言), 광고 선전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표어는 정치적 선동이나 선전에도 이용된다. 전시표어(戰時標語)나 정당표어(政黨標語)에 이 종류의 표어들이 많다. 리듬 있고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이 생명이지만, 논리성보다는 정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데마고기(demagogy: 선동적인 선전)가 될 위험성도 있다. <sup>2)</sup>

광고의 표어를 살펴보면 기업의 주장이나 상품의 특징을 짧은 언어로 나타낸 것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 쉽고, 말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리듬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상품명을 넣어 지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표어는 '특정한 사상, 감정, 사실, 판단 등을 전파하는 기술'이며 '의견, 행동, 태도 등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상업적, 사회적 목적 하에서 계획되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또한 '간단한 언어와 반복효과를 상징하는 전달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3)</sup>

표어와 유사한 슬로건(slogan)이란 말도 있다. 슬로건은 '대중의 행동을 조작(操作)하는 선전에 쓰이는 짧은 문구'를 말한다. 이 말은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위급할 때 집합신호로 외치는 소리 (sluagh-ghairm)를 슬로건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논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1) <http://blog.empas.com/ewcys7/read.php?a20=1428> [인용 2004. 2. 2].

2) <http://100.empas.com/entry.html/?i=182718&v=46&Ad=Encyber> [인용 2004. 2. 2].

3) <http://blog.empas.com/ewcys7/read.php?a=1428> [인용 2004. 2. 3].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4호)

것은 아니며 정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면도 적지 않다. 특히 대중은 피암시성(被暗示性)이 강하므로 정서적으로 채색된 단순한 표어가 효과를 나타내는 수가 많다. 그것은 정치행동으로부터 상업광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데, 하나같이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표현이 단순하며, 단정적(斷定的)이라는 점 등이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대중의 태도가 동요적이고 미확정적일 때일수록 슬로건의 호소력은 크다.<sup>4)</sup>

그리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란 말도 있다. 이 말은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이다. 캐치프레이즈는 사용되는 경우와 범위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소 다른데, 신문·잡지의 기사, 문장 등의 편집에 사용되는 경우와 점두 판매에 쓰이는 경우 등이 있다. 캐치프레이즈의 구비 요건으로는 내용의 핵심을 단적으로 표현할 것, 짧을 것, 눈에 띄기 쉬울 것, 인상적이고 강렬한 글귀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광고에서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들이 광고에 관심을 가지느냐, 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 마디의 문구가 광고의 구독률, 나아가서는 상품의 매상에 영향을 끼치게 때문이다. 캐치프레이즈는 당연히 광고의 내용(본문)을 읽도록 유도하는 구실을 하며 그것만으로써 광고주·상품명을 쉽게 상기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또한 독립된 표어나 슬로건의 의미로 쓰인다.

다시말 말하면 표어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귀' 즉 슬로건이다.

## 2. 표어의 특징

표어는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1) 현실성

한 시대의 국민들을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바탕을 둔 표어를 만들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거나 허황된 표어는 대중들의 외면을 살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 (2) 목적성

「읽으면 행복합니다.」,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등의 표어는 금방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고 꼭 직선적인 표현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암시적인 표현도 목적이 확실해야

4) <http://100.empas.com/entry.html/?i=99868&v=46&Ad=Encyber> [인용 2004. 2. 2].

한다. 「책을 읽자」 >보다는 「책 읽는 작은 여유 마음속의 큰 행복」, 「기름이나 물을 아끼자」보다 「한 방울도 아끼자」라는 표어는 암시적이지만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이다.

(3) 지속성

사람의 심리적 상태는 자주 자극을 받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신념으로 발전하는 예를 종교에서도 볼 수 있다. 표어에서 예를 들면 「불 불 불조심」,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차레차레 타는 습관 다져지는 교통질서」 등은 과거에도 많이 썼고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4) 독창성

독창성이 결여되면 내용 전달에 급급해지고 싫증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봉사하는 작은 손길 이웃사랑 실천의 길」, 「되로 베푼 자원봉사 말로 되어 돌아온다」, 「독서력이 국력입니다」 등이다.

(5) 보편성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 「아빠! 오늘도 무사히」, 「내가줍는 휴지 한장, 오천만이 웃고 산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등은 독창성과 보편성을 함께 지닌 표어라 할 수 있다.

(6) 단순·간결성

표어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고 짧은 문구라야 한다. 예를 들면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봉사의 마음 행복의 미소」, 「아빠의 금연 가정의 행복」, 「금연은 가족 사랑」 등과 같은 표어이다.

(7) 계도성

표어에는 대중을 설득하는 기능과 알리는 기능이 있다. 또한 보는 이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입각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낭비 앞에 풍요 없고 저축 앞에 가난 없다」, 「사고장소 따로없고, 사고시간 예고없다」, 「19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 많은 표어가 계도의 기능이 있는 표어이다.

(8) 사회성

표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를 제시한다. 시대에 맞지 않은 표어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1970-80년대에는 「간첩을 잡자」, 「새마을 운동」 이런 표어가 그 시대를 나타내 주었다면, 2000년대에는 「새 천년의 약속 제2의 건국」,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등 이런 표어가 오늘날 시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의 주의를 끄는 것이어야 하고 관심과 욕망을 유발시켜야 한다. 또한 결심과 행동을 하도록 촉구한다. 그렇다고 선정적이거나 기만의 내용을 피해야 할 것이다.

### 3. 표어의 유형

1) 구조적 유형

표어는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

(1) 짧고 간결하다.

대부분의 표어는 16음절 이내이며, 조사와 술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사랑 나라사랑」, 「바른 삶 실천하기」, 「총력 안보」, 「새마을 새마음」 등이 있다. 운율을 위해서 조사를 넣는 경우가 있다. 「초소가 따로 없다 내 선 곳이 초소이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등이 있다.

(2) 도치법을 쓴다.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뒤의 말을 바꾼다. 「상기하자 6·25」, 「북괴는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혼란을」 등이 있다. 이런 유형의 표어들은 뜻을 확실히 드러낸다.

(3) 대구(對句)형식이다.

대구형식은 읽기 쉽고, 편하다. 옛날부터 내려 온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문학 장르인 시나 시조 등 운문에는 3음조, 4음조가 많다. 국어의 어휘도 3음절, 4음절이 많은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4) 반복법 형식이다.

「산 산 산 푸른산」, 「불 불 불조심」,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설마 설마 방심말고 조 심 조심 불조심」 등이 그 예이다.

## 2) 문장유형

### (1) 청유형

표어라는 속성 자체가 대중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명령형은 드물다. 대부분의 표어가 ~하 자 등으로 대중을 유도한다. 예외로 명령형은 <씻어라 비벼라 말려라>, <와서 보시오>, <화기 진입 금지> 등 소수에 불과했다.

### (2) 서술형

많지는 않지만 현대로 올수록 서술형이 많다는 것은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중전화는 우리 모두의 재산 다같이 아끼고 깨끗이 사 용합시다> 등.

### (3) 명사형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태는 비록 명사형이지만 서술어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이다. <폭력추 방>, <생명의 ?>, <세계는 하나> 등등은 비록 명사형으로 끝났지만 기능은 서술형이다.

(4) 표어는 순수 국어로 많이 창작됨을 볼 수 있다. 반 이상의 표어들이 거의 국어로 만들어졌다. 예외로 영어를 사용한 표어는 몇 개에 불과했는데 <벨트>, <에너지> 등 소수였다.

## 3) 주제별 유형

(1) 비유나 상징이 드물다. 이것은 표어의 특수성이 때문이라고 본다. 금방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 대신 강조법이 많이 사용된다. 예는 ~있다, ~없다 등등 으로 나타낸다. 「필승의 신념 앞에 6:25는 다시 없다」 등이다.

(2) 주제는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한다.

옛날에는 가족계획, 건설, 새마을, 간첩신고 등이 많았는데 현대로 올수록 IMF, 경제위기, 새천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4호)

년, Y2K 등이 많았고, 환경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특이하게도 진해에는 해군들이 많기 때문에 해군에 관한 표어가 상당수 조사되었다. 한 두 개만 들면 <진해 사랑 나라 사랑 해군사랑>, <해군사랑 경남사랑 나라사랑> 등이 있다.

(3) 의미상 같은 주제 안에서도 대립된다는 사실이다. 뜻을 강조하기 위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몇 개의 예만 들어보면 <짧은(+적음) 시간 많은(-적음) 노력 자기발전 나라발전> <오분(+단기) 먼저 가려다 오십년(-단기) 먼저간다>, <아는 질서 (+질서) 실천하고 틀린질서(-질서) 반성하자>, <모이면(+모임) 질서 헤어지면(-모임) 청결>, <과속(+과속)은 위험 안전거리(-과속) 유지>, <퇴폐향락(-건전) 바로잡아 건강사회(+건전) 건설>, <땅굴파며 남북대화(+평화) 속지말자 위장평화(-평화)>, <사고는 순간(+단기) 불행은 영원(-단기)> 등등 수십개의 표어에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어휘가 반드시 상대어는 아니다.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기저에 갖고 있어 대립되는 자질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 분과 오십 년은 상대어는 아니나 시간의 길이를 변별자질로 따질 때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긍정적으로 호소하는 주제와 부정적으로 호소하는 주제가 많다.

한 두 개의 예를 들면 긍정은 <우리 모두 친절합시다> 등 거의 모든 표어가 해당되고 부정적인 경우는 <우리는 싫어한다 범죄와 무질서를>, <분열을 자멸이다 총화만이 살 길이다.> 등 다수가 조사되었다.

(5) 주제가 직설적으로 표현된다.

(6) 주제가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전이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수하여 광명찾자>라는 표어는 원래 간첩 설득용이었으나 요즘은 다방면에 많이 쓰이고 있다.



### Ⅲ. 독서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 1. 독서주간과 독서의 달

독서주간의 유래는 1919년 미국의 Bayscout 도서관장 후랑크린 K. 머슈씨<sup>5)</sup>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소년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창되었다. 그 후 미국도서관협회가 주동이 되어 청소년은 물론 전 국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왔고 이것이 점차 각국에 보급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전 인류의 독서보급 운동으로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가을에 열리는 독서주간(Book Week)이 있다. 독서주간은 도서 및 독서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독서를 전시하고 강연하는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이래 매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관동대지진 발생 이듬해인 1924년에 독서주관을 개최하기 시작하는 등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도서관과 독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서주간은 제2차대전 중에 중단되었고 패전 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47년에 부활하여, 현재는 독서추진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봄에는 어린이독서주관을 3주간, 가을에는 독서주관을 2주간 개최하고 있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는 192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5년 본 협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이다.<sup>7)</sup>

우리나라는 국민독서 진흥을 위하여 1955년 1회부터 1993년 39회까지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관을 독서주간으로 지켜 왔으며, 또한 10월 24일부터 29일,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독서주관을 지킨 때도 있었다.

독서주간은 1967년 13회까지는 도서관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68년 14회부터 대한출판협회가 주관하기로 하였다.<sup>8)</sup>

그러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어 1994년 9월부터 9월 독서의 달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 한편 한국 인천 최초 교육문화예술분야에서는 독서주간 행사를 1949년 시립도서관에서 독서주간행사를 개최하여 독서주간 설정에 전국 확산 계기<sup>9)</sup>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은 독서주간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1947년부터 독서주관을 실시하고 있다.<sup>10)</sup>

5) 미국의 소년단 도서부장도 역임하였다.

6) 조재순, “도서관주간의 탄생,” *Newsletter of Libraries*(2004, 4), pp.22-24.

7)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12권, 제9호(1971, 9), p.1.

8)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8권, 제8호(1967, 10), p.26.

9) [http://ssrr.new21.net/inchon/1\\_region\\_profile/6\\_first\\_inchon.htm](http://ssrr.new21.net/inchon/1_region_profile/6_first_inchon.htm) [인용 2004. 11. 16].

10) <http://blog.empas.com/mydears> [인용 2004. 11. 16].

한편 어린이에게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1976년 5월 1일에 5개항의 「어린이 독서현장<sup>11)</sup>」을 제정 선포하였다.<sup>12)</sup> 그리고 5월 첫 주간을 어린이 독서주간으로 제정하였다.<sup>13)</sup>

## 2. 독서 표어 조사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독서표어를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21세기 지식정보 시대에 국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독서진흥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내용, 독서생활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독서의 달 표어를 모집하였다.<sup>14)</sup>

다음은 제1회부터 2004년 현재까지의 표어를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독서주간의 표어

- (1) 같이 읽고 함께 건설(제5회, 도협월보, 제8권, 제9호, 1967.9, p.12)
- (2) 나의 잠재능력 독서로 개발하자(제35회, 도서관문화, 제30권, 제5호, 1989, 9-10, p.39)
- (3) 늘어나는 도서관 줄어드는 사회악(제15회, 도협월보, 제10권, 제2호, 1969.3, p.1)
- (4) 독서는 즐겁게 생활은 알차게(제16회, 도협월보, 제11권, 제10호, 1970.10, p.4)
- (5) 독서로 빛내자 내 가정 내 조국(제16회, 도협월보, 제11권, 제10호, 1970.10, p.4)
- (6) 독서를 생활화 하자(제37회, 도서관문화, 제33권, 제3호, 1992. p.59)
- (7) 독서하는 가정 교양있는 국민(제13회, 도서관, 120권, 1967.9, p.13)
- (8) 독서하는 가정 교양있는 국민(제14회, 도협월보, 제9권, 7호, 1968.9, p.27)
- (9)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제15회, 월간마을문고, 1969. 8-9, p.9)
- (11)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제16회, [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인용 2004.11.15])

11) “어린이 독서 현장,” 도서관, 제31권, 제5호(1976, 5), p.90.

1. 어려서부터 좋은 책을 읽어 마음의 양식을 마련한다.

2. 책에서 옛것과 새것을 배워 참 지식을 만든다.

3. 책에서 바른 글과 바른 말을 익혀 바른 마음을 닦는다.

4. 책을 읽어 즐겁고 보람있게 자라며 삶의 힘을 기른다.

5. 책을 읽어 슬기와 용기를 갖춘 숲모 있는 한국사람이 된다.

12) 손정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야기교실 운영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54권, 제4호(1999년 겨울), p.4.

13) <http://www.kpa21.or.kr/> [인용 2004. 11. 8].

14)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 [인용 2004. 11. 2].

- (12)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제21회, 도협월보, 제16권, 제7호, 1975.7, p.32)
- (13)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제25회, 도협월보, 제20권, 제4호, 1979.5, p.5)
- (14)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제31회, 1985,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15)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제33회, 도협회보, 제28권, 제3호, 1987. 5-6, p.10)
- (16)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제34회, 도서관문화, 제29권, 제5호, 1988, 9-10), p.48)
- (17)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제12회, 도협월보, 제7권, 제7호, 1966.9, p.12)
- (18)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 오는 근대화(제13회, 도협월보, 제8권, 제3호, 1967.3, p.32)
- (19)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제27회, 1981,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20)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 사회(제16회, 도협월보, 제11권, 제10호, 1970.10, p.4)
- (21)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 사회(제21회, 도협월보, 제16권, 제7호, 1975.7, p.32)
- (22) 벗삼아 읽은 책, 평생의 스승(제27회, 1981,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23) 봄비는 도서관 희망찬 이 겨레(제15회, 도협월보, 제10권, 제2호, 1969.3, p.1)
- (24) 사람마다 읽는 버릇 나라 살림 살찌운다(제17회, 도협월보, 제12권, 제9호, 1971.9, 표지)
- (25) 생각하며 독서하자(제35회, 도서관문화, 제30권 제5호, 1989, 9-10, p.39)
- (26) 온 가족의 독서생활 가정행복 이룩된다(제35회, 도서관문화, 제30권, 제5호, 1989, 9-10, p.39)
- (27) 온 가족이 함께 책을 읽자(제36회, 도서관문화, 제32권, 제3호, 1990, p.48)
- (28) 아빠가 권한 책이 엄마에게 도움된다(제17회, 도서관, 1971.3, p.69)
- (29) 아빠도, 엄마도, 나도, 우리집은 독서가족(제16회, 월간마을문고, 1970. 8-9, p.2)
- (30) 읽고 배우고 바로 살자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8권, 제0호(1967.9) p.12. (제6회, 도협월보(제8권 제0호, 1967.9, p.12).
- (31) 읽는 국민 밝은 나라(제11회, 도협월보, 제8권, 제9호, 1967.9, p.28)
- (32) 읽는 나라 밝은 나라(제30회, 1984,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33)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제30회, 1984,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34)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제22회, 도협월보, 제17권, 제7호, 1976.9, p.2, p.31)
- (35)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제28회, 도협회보, 제23권, 제5호, 1982. 9-10, p.19)
- (36)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제29회, 도협회보, 제24권, 제6호(1983. 11-12), p.22)

- (37) 읽어서 앞서고 일해서 잘 살자(제13회, 도서관, 120권, 1967.9, p.13)
- (38) 읽어서 앞서고 일해서 잘 살자(제14회, 도협월보, 제9권, 7호, 1968.9, p.27)
- (39) 좋은 책 바로 읽어 알차게 살자(제13회, 도서관, 120권, 1967.9, p.13)
- (40) 좋은 책 바로 읽어 알차게 잘 살자(제14회, 도협월보, 제9권, 제7호, 1968.9, p.27)
- (41) 좋은 책을 골라 읽자(제35회, 도서관문화, 제30권, 제5호, 1989, 9·10, p.39)
- (42) 정성 모은 독서로 빛나는 내일을(제25회, 도협월보, 제20권, 제6호, 1979.7·8, p.21)
- (43) 좋은 책 등불삼아 밝은 살림 차려 보자(제7회, 도협월보, 제8권, 제9호, 1967.9, p.12)
- (44) 좋은 책 찾는 손이 복을 찾는다(제5회, 도협월보, 제8권, 제9호, 1967.9, p.12)
- (45) 찾아간 도서관 보람찬 내 하루(제15회, 도협월보, 제10권, 제2호, 1969.3, p.1)
- (46) 책들고 찾은 나라 독서로 빛내보자(제6회, 도협월보, 제1권, 제7호, 1960.10, p.15. p.37)
- (47)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제12회, 도협월보, 제7권, 제7호, 1966.9, p.12)
- (48)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 (제13회, 도협월보, 제8권, 제3호, 1967.3, p.32)
- (49) 책든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제31회, 1985,  
<http://delias.dongu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50) 책든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제32호, 도협회보, 제27권, 2호, 1986. 3·4), p.48)
- (51) 책든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제33회, 도협회보, 제28권, 제3호, 1987. 5·6, p.10)
- (52) 책든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제34회, 도서관문화, 제29권, 제5호, 1988, 9·10, p.48)
- (53) 책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가자(제6회, 도협월보, 제1권, 제7호, 1960.10, p.15. p.37)
- (54) 책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가자(제11회, 국회도서관보, 제7권, 제9호, 1965.9, p.1)
- (55) 책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가자(제12회, 월간 마을문고, 1966.9, p.6)
- (56) 책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가자(제15회, 월간마을문고, 1969. 8·9, p.9)
- (57) 책속에 미래가 있다(제38회, 1992. 한겨레신문 1월 20일)
- (58)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제16회, 1970,  
[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인용 2004.11.15])
- (59)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제39회, 1993,  
<http://delias.dongu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60)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제25회, 도협월보, 제20권, 제4호, 1979.5, p.5)
- (61)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제24회, 도협월보, 제20권, 제9호, 1979.11, p.19)
- (62)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제29회, 도협회보, 제24권, 제5호, 1983. 9·10, p.2)
- (63) 책속에 진리있고 독서에 보람있다(제17회, 도협월보, 제12권, 제9호, 1971.9, 표지)
- (64) 책속에 진리 찾아 민족중흥 이룩하자(제16회, 월간마을문고, 1970. 8·9, p.2)

- (65) 책속에 천금보배 읽어서 찾아내자(제11회, 도협월보, 제8권, 제9호, 1967.9, p.28)
- (66)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제38회, 1992. 국민일보 1월 1일)
- (67) 책읽는 국민에 자라나는 국력(제22회, 도협월보, 제17권, 제7호, 1976.9, p.2, p.31)
- (68) 책읽는 독서가족 언제나 명랑가족(제12회, 도협월보, 제7권, 제7호, 1966.9, p.12)
- (69) 책읽는 독서가족 언제나 명랑가족(제13회, 도협월보, 제8권, 제3호, 1967.3, p.32)
- (70) 책읽는 생활속에 밝고 맑은 우리 가정(제17회, 도협월보, 제12권, 제9호, 1971.9, 표지)
- (71) 책읽는 즐거움에 밝아오는 우리 사회(제17회, 도협월보, 제12권, 제9호, 1971.9, 표지)
- (72) 하루하루의 독서가 삶의 즐거움을 준다(제35회, 도서관문화, 제30권, 제5호, 1989, 9-10, p.39)
- (73) 한사람씩 권한 책이 만인을 깨우친다(제6회, 도협월보, 제1권, 제7호, 1960.10, p.15. p.37)
- (74) 한사람씩 권한 책이 만인을 깨우친다(제16회, 월간마을문고, 1970. 8-9, p.2)
- (75) 한사람씩 권한 책이 만인을 깨우친다(제7회, 도협월보, 제8권, 제9호, 1967.9, p.12)
- (76) 한사람씩 권한 책 만인을 깨우친다(제25회, 도협월보, 제20권, 제6호, 1979.7-8, p.21)

## 2) 독서의 달 표어

- (1) 넘어가는 책장하나 쌓이는 평생지식(장려) (제10회, 2003,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2) 독서력이 국력이다(제3회, 1996,  
<http://delias.dongeu.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3) 독서, 바로 당신의 밝은 미래입니다(우수)(제8회, 도서관문화, 제42권, 제4호, 2001.7·8, p.35)
- (4) 독서의 생활화로 물어나는 삶의 향기(장려) (제10회, 2003,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5) 독서는 취미가 아니고 생활입니다(제3회, 1996.  
<http://delias.dongeu.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6) 문화의 세기, 책읽는 사람이 이끌어 갑니다(제4회, 1997, .  
<http://delias.dongeu.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7) 물음표로 책을 펴고 느낌표로 책을 덮자(최우수) (제11회, 2004,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8) 엄마의 두 손엔 그림책, 아이의 마음속엔 꿈과 희망(장려)(제11회, 2004,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9) 인생역전 한 권의 책으로(우수)(제10회, 2003,

-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0) 책 꽃아두면 종이 읽으면 지혜(최우수) (제10회, 2003,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1) 책 속에 작은 여유 생활 속에 큰 정보(우수)(제9회, 2002,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2) 책 속의 넘치는 정보 우리 삶의 지혜로(장려)(제8회, 도서관문화, 제42권, 제4호, 2001.7·8, p.35)
- (13) 책은 행복을 클릭합니다.(장려) (제11회, 2004,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4) 책을 읽으면 꿈★이 이루어진다(장려)(제9회, 2002,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5) 책을 펴세요, 당신의 생활이 행복해 집니다.(우수) (제11회, 2004,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6) 책을 펴자, 세상을 열자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인용 2004.11.16]
- (17) 책을 펴는 당신 손에 더 큰 세상 더 큰 미래(우수)(제11회, 2004,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8) 책 읽는 아빠 엄마 아들딸이 본 받는다(우수)(제9회 2002,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19) 책 읽는 우리가족, 행복한 문화가족(장려)(제8회, 도서관문화, 제42권, 제4호, 2001.7·8, p.35)
- (20) 책 읽는 작은 여유 마음속의 큰 행복(우수).(제10회, 2003,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21) 한권의 책 !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최우수)(제9회, 2002,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22) 한권의 책으로 마음의 풍요를!(장려)(제9회, 2002,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인용 2004. 11.18]

### 3. 독서 표어 분석

표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어를 간결성, 도치성, 대구성, 반복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내용 분석으로 청유형, 서술형, 명사형, 외국어 표현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안타깝게도 독서주간 제1회(1955년)부터 제4회(1958년), 제8회(1962년)부터 제10회(1964년)까지, 제18회(1972년)부터 제20회(1974년)까지, 제23회(1977년), 제26회(1980년)의 표어는 조사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독서의 달 표어는 제1회, 제2회, 제6회, 제7회의 표어를 조사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추후에 다시 조사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 1) 구조적 분석

### (1) 간결성

조사된 표어는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 가장 짧은 것이 8 음절이다.

예를 들면 “같이 읽고 함께 건설”, “읽는 국민 밝은 나라”, “읽는 나라 밝은 나라”, “생각하며 독서하자”, “좋은 책을 골라 읽자”, “독서력이 국력이다”, “독서를 생활화 하자”, “책속에 미래가 있다”등 이다. 9 음절에는 “읽고 배우고 바로 살다”,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3.3 조, 4.2 조 3.4 조, 4.4 조로 12 음절, 14 음절, 16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긴 것이 20 음절로 2004년 독서의 달 표어로 “엄마의 두 손엔 그림 책, 아이의 마음속엔 꿈과 희망”이다. 그러나 대체로 짧고 간결하다.

### (2) 도치성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뒤의 음절을 바꾸어 표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독서로 빛내자 내 가정 내 조국”, “정성 모은 독서로 빛나는 내일을”, “인생 역전 환권의 책으로” 등이다. 비교적 적은 편이다.

### (3) 대구성(對句性)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가장 알맞은 표어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흔히 운문에 나오는 것으로 3.3 조, 4.2 조 3.4 조, 4.4 조가 많다.

예를 들면 “찾아간 도서관 보람찬 내 하루”, “독서하는 가정 교양있는 국민”, “책 들고 찾은 나라 독서로 빛내보자”,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사회”등 으로 대부분의 독서 표어가 대구성을 가진다.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등과 같이 표어의 생명은 바로 대구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4) 반복성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반복 음절을 쓴다.

예를 들면 “읽고 배우고 바로 살자”, “책읽는 독서가족 언제나 명랑가족”,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책읽는 우리가족 행복한 문화가족” 등 이다.

## 2) 문장 유형 분석

### (1) 청유형

- 하자과 같이 대중을 유도하고 권유하는 형태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강한 의지로 이룩하기 위하여 강조할 때 쓰이는 캠페인 표어 이다. 조사된 독서 표어에서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은 초기에 많이 발견되었다.

“책들고 찾은 나라 독서로 빛내보자”, “책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가자”, “온 가족이 함께 함께 책을 읽자”, “나의 잠재능력 독서로 계발하자”, “생각하며 독서하자”, “좋은 책을 읽자”, “책을 펴자 세상을 열자”등 이다.

### (2) 서술형

현대로 올수록 서술형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표어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좋은 책 찾는 손이 북을 찾는다..”, “독서는 취미가 아니고 생활입니다.”, “독서,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책을 펴세요 당신의 생활이 행복해 집니다.”, “문화의 세기, 책읽는 사람이 이끌어 갑니다.”, “책을 읽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등 이다.

### (3) 명사형

표어의 형태는 명사형이지만 서술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사된 표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형태 중이 하나이다.

예를 들면 “같이 읽고 함께 건설”,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 “독서하는 가정, 교양 있는 국민”, “봄비는 도서관 보람찬 하루”,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책을 펴는 당신 손에 더 큰 세상 더 큰 미래” 등 이다.

### (4) 외국어

조사된 독서에 관한 표어에는 외국어(영어)가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국어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외국어로 만들어진 표어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책은 행복을 클릭합니다.”라는 표어 이다.



## 3) 사용 빈도 분석

같은 표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횟수가 많다. 2회 이상 사용한 표어는 “독서하는 가정 교양있는 국민”(2회),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7회),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3회),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사회”(2회),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4회), “읽어서 앞서고 일해서 잘 살자”(2회), “좋은 책 바로 읽어 알차게 잘 살자”(2회), “책속에 길이 있다 옳게 일고 바로가자”(4회), “책든손 빛나고 읽는 눈 빛난다”(6회),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5회), “책 읽는 독서가족 언제나 명랑가족”(2회), “한사람씩 권한 책이 만인을 깨우친다”(2회), 독서주간에서 사용된 표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어는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로 7회이며 그 다음이 “책든손 빛나고 읽는 눈 빛난다”가 6회,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이 5회이다.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와 “책속에 길이 있다 옳게 일고 바로가자”가 4회이며, 2회 이상 사용된 표어가 모두 12개이다.

독서의 달은 역사도 짧지만 국민들에게 공모하고 심사하여 선정한 표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독창적이다.

&lt;표-1&gt; 표어의 사용 횟 수

순서	표어	년도	횟 수
1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1969, 1970, 1975, 1979, 1985, 1987, 1988	7회
2	책든손 빛나고 읽는 눈 빛난다	1966, 1967, 1985, 1986, 1987, 1988	6회
3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1970, 1978, 1979, 1983, 1993	5회
4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	1976, 1982, 1983, 1984	4회
	책속에 길이 있다 옳게 일고 바로가자	1960, 1965, 1966, 1969	
5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	1966, 1967, 1981	3회
6	독서하는 가정 교양있는 국민	1967, 1968	2회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사회	1970, 1975	
	읽어서 앞서고 일해서 잘 살자	1967, 1968	
	좋은 책 바로 읽어 알차게 잘 살자	1967, 1968	
	책읽는 독서가족 언제나 명랑가족	1966, 1967	
	한사람씩 권한 책이 만인을 깨우친다	1960, 1967	

## 4) 시대별 단어 분석

독서주간 시대인 1960년과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시대로 경제개발 시대라 할 수 있다. 독서 표어도 건설, 나라 빛내자. 밝은 살림, 근대화, 밝은 나라, 잘 살자, 희망, 줄어드는 사회악, 발전

하는 국가, 민족 중흥, 밝은 사회, 국력, 빛나는 내일 등으로 독서를 통하여 경제발전, 국가의 발전 등 희망찬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0년대 90년에 들어와서도 근대화, 국가발전, 가정 행복, 즐거움, 미래 등으로 주로 국가 발전과 행복, 미래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

독서의 달 시대인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독서생활, 문화, 지혜, 가족, 정보, 꿈, 행복, 지식, 희망 등으로 문화의 시대와 지식정보사회에 관련 된 단어로 표어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공모한 표어로 표현이 다양하고 문장이 비교적 길고 서술적인 표어가 많은 편이다.

표어는 그 시대의 목표, 철학 및 그 시대의 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독서 표어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개발 시대의 대표적인 독서표어로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 “읽어서 앞서고 일해서 잘 살자” 등이다.

지식정보 시대의 대표적인 표어로 “문화의 세기, 책읽는 사람이 이끌어 갑니다”, “책 속에 작은 여유 생활 속에 큰 정보”, “책은 행복을 클릭합니다” 등이다.

<표-2> 표어에 나타난 명사형 단어 조사

자모 순	단 어	비 고
ㄱ	가정, 가족, 건설, 거래, 계발, 국가, 길, 국민, 국력, 꿈, 근대화,	
ㄴ, ㄷ	눈, 능력, 느낌표, 당신, 독서, 도서관, 등불, 딸	
ㄹ, ㅂ	만인, 마음, 문화, 명랑, 물음표, 미래, 민족, 발전, 보배, 복, 본, 버릇, 벗	
ㅅ, 0	사람, 사회, 사회악, 살림, 삶, 생각, 생활, 세상, 손, 스승, 아들, 아빠, 엄마, 여유, 인생역전, 일	
ㅈ, ㅊ ㅋ	잠재, 정보, 정서, 조국, 종이, 중흥, 지식, 지혜, 진리, 즐거움, 책, 책장, 천금, 클릭	
ㅍ, ㅎ	평생, 풍요, 하루, 향기, 행복, 힘, 희망	

#### IV. 독서표어 분석 결과 논의

조사된 표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간결하고 도치된 표어가 많다. 또한 대구와 반복 음절을 쓰고 있으며, 독서표어가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 가장 짧은 것이 8 음절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3.3 조, 4.2 조 3.4 조, 4.4 조로 12 음절, 14 음절, 16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긴 것이 20 음

절로 2004년 독서의 달 표어로 “엄마의 두 손엔 그림 책, 아이의 마음속엔 꿈과 희망”이다. 그러나 대체로 짧고 간결하다.

독서표어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뒤의 음절을 바꾸어 표현 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독서로 빛내자 내 가정 내 조국”, “정성 모은 독서로 빛나는 내일을”, “인생 역전 한권의 책으로” 등이다. 비교적 적은 편이다.

조사된 독서표어에 대구 표현이 많다. 흔히 운문에 나오는 것으로 3.3 조, 4.2 조 3.4 조, 4.4 조가 많다. 예를 들면 “독서하는 가정 교양있는 국민”,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오는 우리사회”등으로 대부분의 독서 표어가 대구성을 가진다. “책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등과 같이 표어의 생명은 바로 대구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반복 음절을 쓴다. 예를 들면 “읽고 배우고 바로 살자”, “책읽는 독서가족 언제나 명랑가족”,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책읽는 우리가족 행복한 문화가족” 등이다.

문장 유형을 분석해 보면 청유형과 서술형, 명사형이 많고 외국어로 된 단어도 보인다.

“생각하며 독서하자”와 같이 대중을 유도하고 권유하는 형태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강한 의지로 이룩하기 위하여 강조할 때 쓰이는 캠페인 표어이다. 조사된 독서 표어에서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은 초기에 많이 발견되었다. “책들고 찾은 나라 독서로 빛내보자”, “책속에 길이 있다. 옹게 읽고 바로가자”, “은 가족이 함께 함께 책을 읽자”, “나의 잠재능력 독서로 계발하자”, “생각하며 독서하자”, “좋은 책을 읽자”, “책을 펴자 세상을 열자”등이다.

현대일수록 서술형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런 표어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좋은 책 찾는 손이 북을 찾는다..”, “독서는 취미가 아니고 생활입니다.”, “독서,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책을 펴세요 당신의 생활이 행복해 집니다.”, “문화의 세기, 책읽는 사람이 이끌어 갑니다.”, “책을 읽으면 꿈★이 이루어진다.”등이다.

표어의 형태는 명사형이지만 서술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사된 표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형태 중이 하나이다. 예를 들면 “같이 읽고 함께 건설”,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 “독서하는 가정, 교양있는 국민”, “봄비는 도서관 보람찬 하루”,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책을 펴는 당신 손에 더 큰 세상 더 큰 미래” 등이다.

조사된 독서에 관한 표어에는 외국어(영어)가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국어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외국어로 만들어진 표어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책은 행복을 클릭합니다.”라는 표어이다.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어를 조사 하였더니 같은 표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횟수가 많다. 독서주간에서 사용된 표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어는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로 7회

이며 그 다음이 “책든손 빛나고 읽는 눈 빛난다”가 6회,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이 5회이다. “읽어서 기쁘고 알아서 힘된다”와 “책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가자”가 4회이며, 2회 이상 사용된 표어가 모두 12개이다. 독서의 달은 역사도 짧지만 국민들에게 공모하고 심사하여 선정된 표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독창적이다.

독서표어를 시대적으로 분석해 보면 독서주간 시대인 1960년와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시대로 경제개발 시대라 할 수 있다. 독서 표어도 건설, 나라 빛내자, 밝은 살림, 근대화, 밝은 나라, 잘 살자, 희망, 줄어드는 사회악, 발전하는 국가, 민족 중흥, 밝은 사회, 국력, 빛나는 내일 등으로 독서를 통하여 경제발전, 국가의 발전 등 희망찬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0년대 90년에 들어와서도 근대화, 국가발전, 가정 행복, 즐거움, 미래 등으로 주로 국가 발전과 행복, 미래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

독서의 달 시대인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독서생활, 문화, 지혜, 가족, 정보, 꿈, 행복, 지식, 희망 등으로 문화의 시대와 지식정보사회에 관련 된 단어로 표어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공모한 표어로 표현이 다양하고 문장이 비교적 길고 서술적인 표어가 많은 편이다.

표어는 그 시대의 목표, 철학 및 그 시대의 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독서 표어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개발 시대의 대표적인 독서표어로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독서하는 국민에 따라오는 근대화”, “읽어서 앞서고 일해서 잘 살자” 등이다.

지식정보 시대의 대표적인 표어로 “문화의 세기, 책읽는 사람이 이끌어 갑니다”, “책 속에 작은 여유 생활 속에 큰 정보”, “책은 행복을 클릭합니다” 등이다.

## V. 결론 및 제언

표어란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 독서표어는 독서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어의 특징,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주간과 독서의 달의 표어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된 표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간결하고 도치된 표어가 많다. 또한 대구와 반복 음절을 쓰고 있다. 또한 문장 유형을 분석해 보면 청유형과 서술형, 명사형이 많고 국어로 된 단어가 대부분이다.

- (1) 독서표어는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
- (2) 독서표어는 도치된 표현이 많다.
- (3) 독서표어는 대구 표현이 많다.
- (4) 독서표어는 반복 음절을 사용하고 있다.
- (5) 독서표어는 청유형이 많다.
- (6) 독서표어는 서술형이 많다.
- (7) 독서표어는 명사형이 많다.
- (8) 독서표어는 국어로 표현된 것이 많다.
- (9) 독서표어는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다.
- (10) 독서표어는 당시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되지 못한 표어가 다수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조사되지 못한 표어는 반드시 후속 연구로 조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강태완. “공공기관 표어의 언화(speech-act) 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2호(2002년 봄).  
국민일보(1월 1일)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120권(1967, 9).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1971, 3).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제31권, 제5호(1976, 5).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소식(2001, 9)
- 국회도서관소식(2001, 9).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7권, 제9호(1965, 9).
- 새마을 운동본부. 월간 마을문고(1966, 9).
- 새마을운동본부. 월간마을문고(1969, 8·9).
- 새마을운동본부. 월간마을문고(1970, 8·9).
- 손정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이야기교실 운영에 관한 고찰.” 도서관, 제54권, 제4호(1999, 겨울).
- 한겨레신문(1월 20일)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29권, 제5호(1988, 9·10).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0권, 제5호(1989, 9·1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2권, 제3호(1990).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2권, 제2호(1991).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3권, 제2호(199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3권, 제3호(1992).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1권, 제7호(1960, 10).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7권, 제7호(1966, 9).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8권, 제3호(1967, 3).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8권, 제9호(1967, 9).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8권, 제8호(1967, 10).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9권, 제7호(1968, 9).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10권, 제2호(1969, 3).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11권, 제10호(1970, 10).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12권, 제9호(1971, 9).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16권, 제7호(1975).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17권, 제7호(1976).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18권, 제2호(1977, 3).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20권, 제4호(1979, 5).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20권, 제6호(1979).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20권, 제9호(1979, 11).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3권, 제5호(1982, 9·10).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4권, 제5호(1983, 9·10).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4권, 제6호(1983, 11·12).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7권, 제2호(1986, 3·4).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8권, 제3호(1987, 5·6).  
<http://www.kpa21.or.kr/> [인용 2004. 11. 8].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 [인용 2004. 11. 16].  
<http://www.kpa21.or.kr/> [인용 2004. 11. 8].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 [인용 2004. 11. 16].  
[http://ssrr.new21.net/inchon/1\\_region\\_profile/6\\_first\\_inchon.htm](http://ssrr.new21.net/inchon/1_region_profile/6_first_inchon.htm) [인용 2004. 11. 16].  
<http://blog.empas.com/mydears> [인용 2004. 11. 16].  
[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 [인용 2004. 11. 15].  
[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 [인용 2004. 11. 15].

<http://pwclis.pwc.ac.kr/lis/fun/dic2.htm> [인용 2004. 11. 2].

<http://100.empas.com/entry.html/?i=182718&v=46&Ad=Encyber> [인용 2004. 2. 2].

<http://blog.empas.com/ewcys7/read.php?a=1428> [인용 2004. 2. 3].

<http://100.empas.com/entry.html/?i=99868&v=46&Ad=Encyber> [인용 2004. 2. 2].

<http://blog.empas.com/ewcys7/read.php?a20=1428> [인용 2004. 2. 2].

[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http://ljw1110.com.ne.kr/fourlist_4_6.htm) [인용 2004. 11. 15].

<http://delias.donggeui.ac.kr/mailling/messages/data1/8934.html> [인용 2004. 11. 16].